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활동 사례

##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 목차

- 1 기후위기와 인간
-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 해외 문화예술활동 사례
- 3 부울경 지역이 문화예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 4 기후위기에 발현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 요약

- 본 동향리포트는 문화예술계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기후위기가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인간의 활동으로 비롯된 급격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천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음
- 해외 사례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기후정의 실천을 표방하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Julie's Bicycle의 대표 프로젝트들을 제시함. 국내 사례로는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상생활의 식문화부터 시작해, 거주지 인근 환경문제 인식, 지역 생태 탐구,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4가지 차원으로 접근한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사례들을 조사하였음
- 본 동향리포트에서 정리한 개념과 조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발현되기를 기대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활동 사례

##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김수정 연구원

### 1 기후위기와 인간

#### ■ 기후위기(Climate Crisis)와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대한 개념이해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 인간 활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 모두를 아울러 '기후변화'라고 표현함
- '기후위기'란, 기후변화 현상이 현대에 들어 인간의 산업활동에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로 비롯된 지구 역사상 기록적인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례없던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는 관점을 넘어서서, 인간사회 내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치관을 '기후정의'라고 일컬음
- 한국환경연구원(한상운, 2021)은 기후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음<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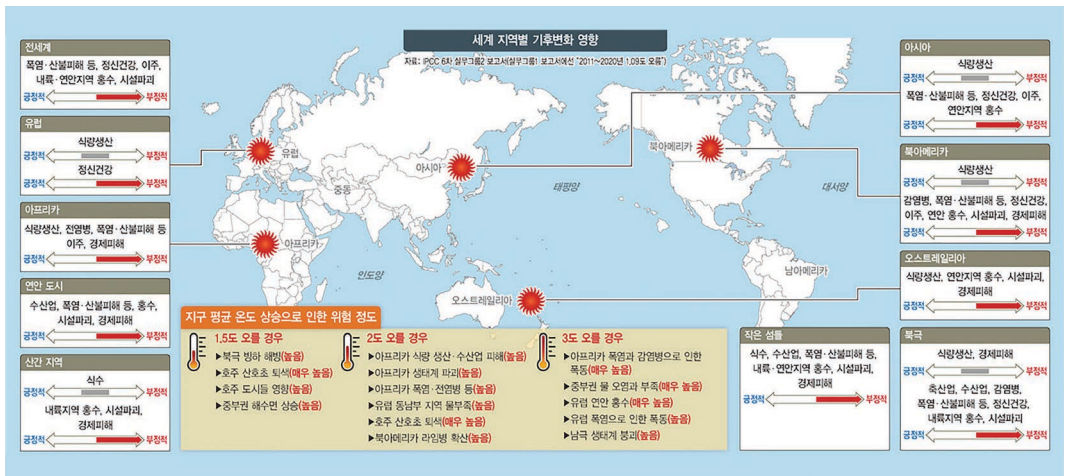
- \* 분배적 개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적정히 분배하는 것
- \* 절차적 개념: 기후위기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것
- \* 생산적 개념: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 화석연료 생산구조 및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것
- \* 인정적 개념: 지구적 차원의 이익과 생태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1) 한상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3), 한국환경연구원, 2021, 111쪽

## ■ 기후위기가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에서는 자기보호능력을 갖춘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음
- IPCC에 따르면, 선진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구조 변화, 생물종 이동, 계절 길이 변화 등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하고있는 반면, 상대적 빈곤국은 물·식량부족, 건강권과 주거권, 위생권 위협 등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큼<sup>2)</sup>
- 다시 말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더디거나 대응력이 낮을수록 인류에게 미치는 피해는 커지게 되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부터 위협에 처하게 됨

[세계 지역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sup>3)</sup>



- 본 동향보고서는 문화예술계가 이러한 기후위기발 사회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문화예술로 행동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 사례로 영국의 Julie's Bicycle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영역 내에서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2) IPCC, 「제6차 보고서 2차 실무그룹 보고서」/ 참고기사 : 중앙일보, 편광현·정종훈 기자, 2022.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871>)

3) 사진출처 : 한겨레, 최우리·김정수·김민제 기자, 2022.03.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2985.html>)

##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 해외 문화예술활동 사례

### ■ 영국 Julie's Bicycle

- Julie's Bicycle은 2007년. 음악 산업계에서 시작해 현재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2,000개가 넘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문화예술 전 영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음
- 2021-22년에는 698개의 NPO를 대상으로 1,092개 장소, 646개 사무실, 123개 프로덕션, 109개 축제 및 145개 실내 행사의 환경적 영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함. 문화예술 활동 시 소모되는 에너지, 물 사용량, 폐기물의 양, 비즈니스 시 이동 수단으로부터의 탄소 발생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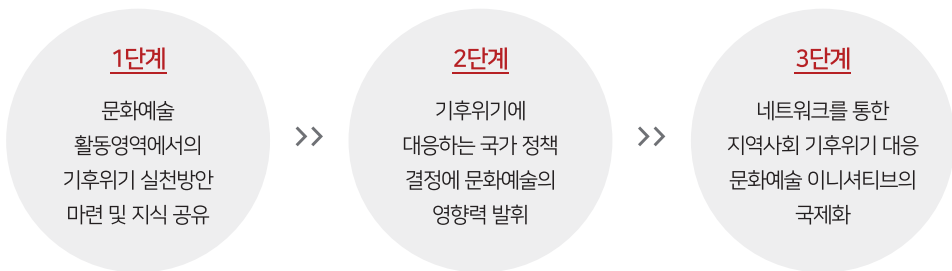
[표] Julie's Bicycle의 대표 활동

대표 활동	주요 내용
<p>Arts Council England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문화예술로 인식을 변화시키며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진행 및 관련 예술가(단체) 활동 지원</li> <li>• 주요 세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문화예술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창작환경에서의 친환경 실천 방안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li> </ul> </li> <li>[Creative Green To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운영, 투어, 제작, 축제 등 문화예술 관련 영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및 환경 계산기 기능 제공. 에너지 사용량, 물 소비량, 폐기물 양 등을 측정해 전 세계 문화예술 영역 친환경 실천 관련 데이터 확보 및 공유</li> </ul> </li> <li>[환경 관련 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연구, 웨비나, 연차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자료 제공</li> </ul> </li> </ul> </li> </ul> <div data-bbox="391 1152 1204 1587"> <p>The infographic displays environmental impact data for Arts Council England. On the left, it lists: TOTAL 60,338 tonnes CO<sub>2</sub>e (with a footprint icon), TOTAL ELECTRICITY 136 million kWh (with a lightning bolt icon), and TOTAL GAS 145 million kWh (with a flame icon). On the right, it shows: TOTAL ENERGY USE 281 million kWh (with a lightbulb icon), ENOUGH TO POWER 18,891 UK households* (with a house icon), and £26.9 million TOTAL ENERGY SPEND* (gas+electricity) (with a pound sign icon). Below the data are four case study thumbnails: 'Arts Council Engl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ort 2021/2022', 'Connecting nature through art and design with Invisible Flock', 'Highlighting indigenous climate activists with Index on Censorship', and 'The storytelling of human energy consumption with Sinfonia Viva'.</p> </div> <p>(좌)참여 문화예술 단체들의 환경 관련 데이터 / (우)문화예술 활동 사례 연구<sup>4)</sup></p>

4) 출처 : (좌)Julie's Bicycle, 「Culture,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Annual Report 2021-22」, 9쪽, 12쪽  
 (우)Julie's Bicycle 홈페이지(<https://juliesbicycle.com/resources>)

대표 활동	주요 내용
Creative Climate Jus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창의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li> <li>• 주요 추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lour Green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부터 환경 관련 제안책들이 백인 중산층 중심의 관점이 다수라는 점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창의적인 유색 인종 예술가들이 환경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팟캐스트 및 인터뷰 영상으로 제작</li> </ul> </li> <li>[Season for 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2021년 영국 내 문화부문 16개 예술위원회, 예술가, 예술 단체가 모여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 작품 및 행동을 주최하는 공개 프로그램 진행. 이를 통해 문화 부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음</li> </ul> </li> </ul> </li> </ul>
정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영국을 비롯해 국제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li> <li>•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도시문화포럼(WCCF)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연구, 톨킷 개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도시의 역할을 탐구함</li> <li>☞ 기후에 대한 문화협력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6개 도시가 모여 C-change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 정보교류, 로컬에서의 기후 관련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li> </ul> </li> </ul>

-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Julie's Bicycle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활동 지원, 기획 프로젝트 진행 등의 실천사항 외에도 문화예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감
- 그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 전략적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가 기후정의 실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주요 실천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 3 부울경 지역이 문화예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 부울경 지역에서 실행된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활동들은 '참여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상생활 차원에서 시작하여, 거주지 인근 환경 차원, 지역 생태적 차원을 거쳐 거시적으로는 '참여자'가 속한 사회구조적 문제 인식에 대한 거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례들을 조사하고자 하였음
- 앞서 말한 네 가지 차원을 식문화, 해양오염, 생태변화, 사회문제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련문화예술활동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요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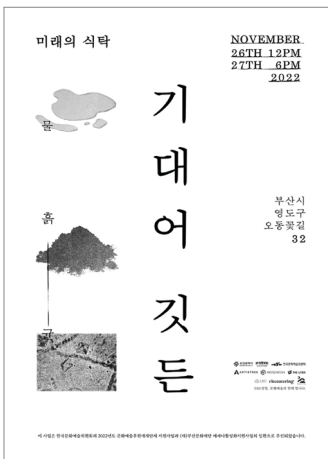
영역	추진 지역	관련 사례명	주요 내용
식문화	부산	미래의 식탁 기대어 깃든, 물, 군, 흙	☞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식(食)문화를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해양오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비치코밍	☞ 부산, 울산, 경남 생활문화 동아리와 시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
생태변화	부산	1제곱미터의 우주	☞ 부산지역 물문대와 다대포를 중심으로 해당 장소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생활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문화예술 실천
사회문제	경남 통영	뿔난 섬 프로젝트	☞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획된 삶, 생태, 환경 주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 (1) 식문화 영역 : '미래의 식탁 - 기대어 깃든, 물, 흙, 균'

### [개요]

- 날짜/장소 : 2022. 11. 26. ~ 11. 27. 부산 영도 봉래구 봉산마을회관
- 기획의도 :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식문화를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 추진장소 특징 : 부산 영도는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재료와 식문화를 지니고 있음

- '미래의 식탁-기대어 깃든'은 부산문화재단 주관 프로젝트로, 부산지역 식당인 오뎃한, 나유타, 라이스 케이터링의 셰프 3명이 참여하고, 셰프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식사를 제공함
- 예컨대 비건 식재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식량문제 해결책으로서 우리나라 해조류 및 토종종자를 활용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식재료 대안을 제시함
  - \* 구성1 : 가장 복잡하지만 단순한 밥상('오뎃한' 장은수 셰프)
    - 발효음식과 토종곡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조리법을 공유
  - \* 구성2 : 사양의 식탁('나유타' 나까 셰프)
    - 음식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낸 희망을 표현하고자 함. 식사라는 행위 자체를 일몰과 일출에 비유하여 플레이팅 시도
  - \* 구성3 : 버섯, 세 가지 맛('라이스 케이터링' 한수련 셰프)
    -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버섯을 주 식재료이자 오브제로 활용해 다양한 버섯 종류의 자유분방한 모양을 담아내고자 함
- 음식과 더불어 셰프들이 구성한 식단의 음식 주제에 맞춘 콘셉트로 서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식사,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경험을 제공함



(좌측부터) 프로젝트 포스터, 서버 퍼포먼스, '버섯, 세 가지 맛' 체험 중인 참여자

## 2) 해양오염 문제 : 부울경 비치코밍 프로젝트

### [개요]

- 날짜/장소 : 2022. 5. ~ 10. 부산 '일광', 울산 '간절곶', 경남 '와현', 부산 '용호'
- 기획의도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생활문화 동아리와 시민들이 함께 비치코밍에 참여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메시지 전달
- 추진장소 특징 : 세 지역 모두가 바다라는 지리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해양쓰레기, 해양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곳임

- 부산에서 실시한 '2021 비치코밍 프로젝트'(부산문화재단 주관)에 이어, 올해에는 추진지역을 울산과 경남까지 확대해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를 실시함
-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자원고갈,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울경 지역이 바다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가진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임
- 부·울·경 지역 해안가를 비치코밍, 플로깅하며 해양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주운 쓰레기들을 재료로 활용한 예술작품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됨. 비치코밍 이후에는 부울경 지역의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을 진행하는 등, 시민과 예술가가 협업해 환경문제를 예술로 풀어내고자 한 점이 돋보임
- 야외 행사라 우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차에서는 굶은 날씨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청자 전원이 참여함. 거주 지역을 비롯해 거주 지역 내 바다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발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좌)비치코밍 후 해안가 쓰레기를 모은 모습 / (우)비치코밍 후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



### (3) 생태변화 영역 : 1제곱미터의 우주

[개요]

- 추진일시 : 2021. 11. ~ 2022. 6.
- 기획의도 : 물운대와 다대포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찾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함
- 추진장소 특징 :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수역으로 다양한 생태종이 서식해 오래전부터 어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지만, 산업시설이 들어서며 생태환경이 변화한 장소적 특징을 지님

-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다루는 문화예술단체 '실험실C'는 부산지역 예술가 6명과 프로젝트를 구성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물운대와 다대포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2022년 6월, 장소특정적 전시를 개최하였음
- 1제곱미터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많은 생명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물운대와 다대포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찾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함. 예술작품의 재료로는 물운대 인근 지역의 유리조각, 어업용 페스티로폼과 같은 쓰레기를 채집하여 활용함
- '1제곱미터의 우주' 프로젝트는 다대포라는 공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사적 의미 파악을 선행함. 그 결과 다대포는 60년대 말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 70년대 목재회사들의 설립, 80년대 다대지구 택지 조성 사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역사를 지닌 공간임을 알게됨. 이어 공장, 공단과 같은 산업시설이 들어선 이후 다대포 앞바다에 서식하던 어종이 사라지며 어민이 공존하기 힘든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함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대포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며 생긴 사회구조적 갈등, 변화한 도시 모습과 다대포 생태환경을 예술작품을 통해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좌)강은경 작가의 '파래떡 바다와 나는 나누어 먹는다' / (우)김경화 작가의 '자유의 가능성'

#### (4) 사회문제 영역 : **뿔난 섬 프로젝트**

[개요]

- 추진일시 : 2021년부터 매년 10월 개최
- 기획의도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민과 여행자 두 가지 관점에서 기획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춤
- 추진장소 특징 : 인근 지역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와, 여행자 및 지역 내 어촌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성이 존재하는 고풍화 지역

- 2020년 통영섬지니협의회체를 조직하여, 섬 주민들과 함께 2021년부터 '섬마을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인문학교, 영화제, 음악회를 개최함.
  - \* 구성1 : 섬마을 시인학교
    - 통영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인과 함께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꿈을 문학을 통해 돌아봄
  - \* 구성2 : 섬마을 영화제
    - 섬 주민, 영화 관계자, 여행자 등 10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에 투영된 섬 주민의 삶,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짐
  - \* 구성3 : 뿔난섬 음악회(Plastic no'N seom)
    - 해양쓰레기로 인해 화가 난 섬, 플라스틱 없는 섬, 플라스틱이 나는 섬의 의미. 해안가로 밀려드는 쓰레기 처리를 직접 수행하기 힘든 고풍화 지역에서, 외부인들과 협력해 문화예술로 환경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시작함
    - 주민들은 여행객을 맞이하기 위해 섬마을 합창단을 조직, 음악회에 참여하였으며,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플로깅을 진행함. 자연 배경 자체를 무대로 활용해 섬을 지켜나가야 할 지역자산이라고 느끼며 상호 연대감을 구축함
-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을 되돌아보고, 거주민들이 발생시키는 해양 부유물, 쓰레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점을 변화시킴. 또한 자신이 발생시키지 않은 쓰레기들이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좌)뿔난섬 음악회 / (우)비치코밍을 하는 통영시민들

## 4 기후위기에 발현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 ■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활동의 특징

- 앞서 살펴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례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음
- ① 추진과정에서의 폐기물, 에너지 발생량 감소 노력
  -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주변의 쓰레기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시 홍보제작물 다회 사용 등으로 폐기물을 감소하고자 함
  - 또한 야외축제를 개최할 때 자연환경 그대로를 배경으로 활용해 무대장치 설치로 인한 전기 사용량 등의 에너지 발생량 감소에 노력함
- ② 문화적 환경 캠페인
  - 기후위기가 '나'와 '지역'과 무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식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주지 주변환경 정화, 지역 생태 관련 장소특정적 전시 등의 활동을 진행함
  - 이를 통해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관찰하는 주변인들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함
- ③ 기후위기 관련 문제의식 영역 확장
  - 거주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생태변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그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다룸

### ■ 시사점

- 이번 동향보고서에서 살펴본 부울경 지역의 네 가지 사례들은,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기후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지역민들이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심각성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실천 방법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임
- 이처럼 문화예술은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변화, 주거환경 위협 등 다방면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만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함께 소통하며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즉, 문화예술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수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기후정의를 위한 직접적인 실천도 실행하게 만드는 동력을 가지고 있음
-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기후정의 실천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김만동)  
TEL 051-745-7205~7 [www.bscf.or.kr](http://www.bscf.or.kr)